

新羅 聖德王・孝成王代 金順元の 政治的 活動

金 壽 泰*

1. 머릿말
2. 金順元の 세력기반
3. 聖德王의 王權強化와 金順元
4. 景德王의 即位過程과 金順元
5. 맺음말

1. 머릿말

統一新羅의 專制政治下에서 政治機構의 핵심적 존재는 執事部였다.¹⁾ 和白會議에 대신하여 執事部の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 長官인 中侍도 곧 行政府의 首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中侍가 그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王權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우기 이러한 中侍의 중요성은 그 당시의 정치에 여러 가지 변화를 낳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中侍 출신 人物의 女가 계속해서 王妃가 되는 현상은 그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中侍를 역임한 貴族의 女가 王妃로 冊封되는 예는 聖德王代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현상은 주목

* 西江大學校 史學科 講師

1) 中代 執事部에 대하여는 李基白씨의 「新羅 執事部の 成立」(『震檀學報』25・6・7 合併號, 196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과 井上秀雄씨의 「三國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제2장 제2절 「執事部」(『朝鮮學報』51, 1969; 『新羅史基礎研究』, 1974)가 참조된다. 그러나 中侍를 역임한 人物의 活動 등에 대한 개별연구는 없는 것 같다.

을 받았으며, 그 결과 專制王權下에서 中侍를 통하여 성장한 新貴族勢力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해되기도 하였다.²⁾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당시의 정치적 변화와 연결시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 없는 실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孝昭王代에 中侍를 역임하였으며, 聖德王·孝成王兩代에 그의 女를 계승해서 王妃로 納한 金順元이라는 人物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³⁾ 즉 聖德王·孝成王代에 있는 金順元の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당시 어떠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그의 女가 王妃로 冊封되었는가를 알아볼까 한다. 그것은 金順元の 활동이 聖德王의 王權強化와 景德王의 即位過程에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와 함께 살펴질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聖德王·孝成王代의 정치적 변화를 새롭게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金順元の 세력기반

金順元이 聖德王·孝成王代에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기반은 어디에 있었을까. 당시 金順元の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자.

金順元の 정치적 활동은 孝昭王代에 와서야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는 살필 수 없지만, 이 무렵 金順元은 中侍로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A-① 中侍幢元退老 大阿滄順元爲中侍(三國史記 8, 孝昭王 7年 2月)

② 伊滄慶永謀叛 伏誅 中侍順元緣坐罷免(同上, 孝昭王 9年 5月)

2) 李基白씨는 이것은 上代의 貴族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것으로, 中侍를 중심으로 한 官僚的 勢力의 새로운 貴族化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앞의 논문, pp. 167~169).

3) 金順元에 대하여는 주로 孝成王代 外戚勢力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간단한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井上秀雄, 「新羅政治體制的變遷過程」, 『古代史講座』 4.

위의 기록은 金順元이 효소왕 7년(698) 中侍에 임명되었다가 2년 후인 9년(700)에 파면을 당한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金順元의 中侍로서의 활동을 볼 때 그는 中侍가 됨으로써 王權과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일시 실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孝昭王代 金順元의 세력기반은 바로 中侍職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②에 보이듯 그는 모반사건에 연좌되어 中侍職에서 파면됨으로써 곧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소의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은 분명한 듯하다.⁴⁾

이러한 孝昭王末 金順元의 정치적 입장은 聖德王代에 이르면 다시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성덕왕 5년(706)에 만들어진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을 통하여 당시 金順元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 一夫聖人垂拱處濁世而育蒼生至德無爲應閭浮世濟郡有 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所以 神陸太后 孝昭大王奉爲 宗曆聖靈神院伽藍建立三層石塔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 神陸太后遂以長辭高昇淨國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 孝昭大王登靈神龍二年景午五月卅日 今主大王佛舍利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以下以此福田上資 神文大王 神陸太后 孝昭大王代代聖曆枕涅盤之山坐菩薩之崗 隆基大王壽共山河同久位與乾用等大千子具足七寶毘詳 王后體貌月精命同劫數內外親屬長大玉樹茂實寶枝梵釋四王威德增明氣力自在天下太平恒轉法輪二塗勉難六趣受樂法界含靈俱成佛道 寺主沙門善倫 蘇判金順元金與宗特奉 教旨僧令德僧令太韓奈麻阿摸韓舍季曆塔與僧惠岸僧心尚僧元覺僧玄昉韓舍一

1962; 앞의 책, pp. 455~456 및 浜田耕策, 「新羅の聖德大王神鐘と中代の王室」, 『响沫集』 3, 1980, pp. 36~37).

- 4) 한편 金順元을 孝昭王代 改革政治를 실시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 文明大寺는 甘山寺 彌勒菩薩光背銘文의 後記에 언급되어 있는 金志誠이 改革政治를 하다가 실패한 시기를 이 때에 맞추고 있다. 그래서 金順元이 당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金志誠과 함께 개혁정치를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新羅法相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 『歷史學報』 62, 1974, p. 88). 그렇다면 金順元은 이 무렵 中侍로서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다가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세력이 亂을 일으키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侍 金順元이 伊湊 慶永이 일으킨 亂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소의당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仁韓舍全極舍知朝陽舍知純節匠季生關溫(黃壽永編, 『韓國金石遺文』, 1976, pp. 140~141)

B의 銘文은 神文王이 돌아가자 神文王妃인 神陸太后와 그의 아들인 孝昭王이 神文王을 위하여 三層石塔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모두 죽자 聖德王이 그것을 이어 받아 완성시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⁵⁾ 이 때 聖德王의 命을 받아 일을 담당 한 사람이 바로 金順元 등이었다. 그런데 聖德王初 金順元이 이렇게 王室事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孝昭王末과는 달리 聖德王代에 들어오면 金順元이 王室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⁶⁾ 즉 金順元은 聖德王과의 관련 속에서 세력 회복을 꾀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聖德王代 정치적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던 金順元은 이제 聖德王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세력을 떨쳤던 것 같다. 그와 같은 점은 이후 金順元이 그의 女를 聖德王에게 王妃로 바쳤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엿볼 수 있다.

C-① 先妃陪昭王后 諡嚴貞 元大阿干之女 後妃占勿王后 諡炤德 順元角干之女(三國遺事 1, 王曆 1, 聖德王條)

② 納伊湊順元之女爲王妃(三國史記 8, 聖德王 19年 3月)

위의 ①, ②를 통하여 金順元의 女가 성덕왕 19년(720)에 王妃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런데 金順元의 女가 王妃로 冊封되기 전에 聖德王의 王妃로 嚴貞王后가 있었다. 이 王妃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록에서 보다 자

5) 이 石塔의 건립연대에 대하여 李弘植씨가 孝昭王代로 본 이후 일반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慶州 狼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代文化論攷』, 1954, p. 40). 그러나 銘文에서 언급되고 있는 天授 3年(692), 聖曆 3年(700), 大足 2年(702) 등이 모두 神文王, 神陸王后, 孝昭王이 죽은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성덕왕 5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6) 官等上으로도 金順元은 大阿湊에서 蘇判으로 높아지고 있다.

7) 그리고 3개월 있다가 王后로 책봉되었으며, 23년(724)에 돌아갔다(三國史記 8, 聖德王 19年 6月 및 23年 12月).

세히 살필 수 있다.

D-① 納乘府令蘇判金元泰女爲妃(三國史記 8, 聖德王 3 年 5 月)

② 出成貞(一云嚴貞)王后 賜彩五百匹 田二百結·租一萬石·宅一區 宅買康申公舊居賜之(同上, 聖德王 15 年 3 月)

成貞王后로도 불리운 이王妃는 성덕왕 3년(704)에王妃가 되었다가 아무런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15년(716)에 出宮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후 金順元의 女가 聖德王의 後妃로 새롭게 들어온 것이다. 王室事業에 협력하여 세력을 키워 오던 金順元은 이제 外戚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확고히 세력을 굳혀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孝成王代에 가서도 그의 女를 다시王妃로 納하면서 外戚으로서의 지위를 한층 더 누렸던 것 같다.

E-① 納伊湊順元女惠明爲妃(三國史記 9, 孝成王 3 年 3 月)

② 妃惠明王后 眞宗角干之女(三國遺事 1, 王曆 1, 孝成王條)

③ 唐遣使 詔冊王妃朴氏(三國史記 9, 孝成王 2 年 2 月)

E-①을 통하여 金順元의 女가 효성왕 3년(739)에王妃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金順元은 聖德王·孝成王의 父子兩代에 걸쳐서 二重的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⁸⁾ 그런데 金順元의 女는 聖德王代와 마찬가지로 後妃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⁹⁾ E-②, ③을 보면 金順元의 女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王妃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E-③ 기록은 金順元의 女가王妃로 冊封되기 이전에 唐에서 冊封한王妃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王妃가 冊封된 효성왕 2년(738)에는 唐에서 孝成王에게도 冊封을 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효성왕 2년 이전에는 이

8) 金順元의 女인 昭德王后의 長子인 (三國史記 9, 孝成王 即位條) 孝成王은 嫡母와 혼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族內婚이라고 할 수 있다.

9)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井上秀雄, 「新羅政治體制的變遷過程」, pp. 455~456 및 「新羅朴氏王系の成立」, 『朝鮮學報』 47, 1968; 앞의 책, pp. 351~353).

10) 三國史記 9, 孝成王 2 年 2 月. 이 때 唐나라에서는 聖德王의 죽음을 애도하

미 金順元의 女에 앞서 王妃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한편 그것은 E-①에서 金順元의 女로 나오는 惠明夫人이 ②에서 眞宗角干의 女라고 언급되고 있는 데에서도 다른 王妃가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효성왕 2년에 朴氏王妃로 冊封되고 있는 사람은 眞宗의 女로서, 효성왕 2년 이전에 王妃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성덕왕 19년에 그의 女를 처음 王妃로 바친 이후 정치적으로 더욱 세력을 떨치게 되었던 金順元은 孝成王代에도 後妃로서 그의 女를 바침으로써 계속하여 外戚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실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孝昭王代 中侍로 등장하였지만 모반사건에 연좌되어 실각한 金順元이 聖德王·孝成王代에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기반은 王과의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며 外戚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누렸던 데에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3. 聖德王의 王權強化와 金順元

앞에서 聖德王·孝成王代에 金順元의 女가 모두 後妃로서 王妃가 되었음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먼저 金順元이 聖德王代 어떠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할 수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C-①, ②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聖德王의 先妃인 嚴貞王后가 出宮되는 정치적 사정 및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聖德王의 王權強化作業을 알아봄으로써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는 사실을 보내고 있다. 한편 金順元의 女는 효성왕 4년(740)에 唐으로부터 冊封받고 있다(三國史記 9, 孝成王 4年 3月). 그러므로 이러한 唐의 王妃冊封은 孝成王代 두 명의 王妃가 있는 新羅側 사정을 반영하여 준다고 하겠다.

聖德王의 先妃인 嚴貞王后는 D-②에 보이듯 성덕왕 15년에 出宮을 당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역시 아무런 설명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中代의 國王들이 長子에게 王位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꼭 아들을 낳기를 원하였으며, 심지어 그 목적을 위하여 아들을 낳지 못한 王妃를 出宮시킨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¹¹⁾ 그러나 嚴貞王后에게는 아들 重慶이 있었고, 그는 嚴貞王后가 出宮당하기 1년 전에 太子로 冊封되어 살아있었으므로,¹²⁾ 嚴貞王后의 경우 出宮이유는 無子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嚴貞王后의 出宮이 정치적 세력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³⁾ 한편 嚴貞王后의 出宮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王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도 神文王·景德王代처럼 王이 자신의 王權을 보다 強化시켜 나가기 위한 필요에서 王妃를 出宮시켰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와 같은 점은 嚴貞王后의 父의 정치경력과 聖德王이 即位하는 전후의 정치정세 속에서 살펴질 수 있을 것이다.

嚴貞王后의 父는 C-①, D-①에 의하면 元大 혹은 元泰로 나오고 있는 데 동일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神文王 5년(685) 西原小京의 長官이 되어 활동하였는데¹⁴⁾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할 때는 乘府令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한편 그는 聖德王初元 2년(703) 7월에서 4년(705) 1월까지 中侍를 역임한 元文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되고 있다.¹⁵⁾ 그렇다면 嚴貞王后

11)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1, 古代篇, 1982, pp. 312 ~ 313. 여기에서 神文王·景德王代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2) I의 史料 참조.

13) 李基白, 앞의 논문, p. 313. 그러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坂田耕策씨는 「新羅の聖德大王神籙と中代の王室」, p. 36에서 성덕왕 15년에 있는 王妃出宮의 배후에는 貴族간의 분쟁과 음모가 있을 것으로, 거기에서 金元泰一族이 敗退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14) 三國史記 8, 神文王 5年 3月.

15) 李基白씨는 「新羅 執事부의 成立」, p. 167에서 三國遺事に 나오는 元大는 곧 元文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元大는 성덕왕 3년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할 때 中侍·乘府令을 겸임하게 된다.

의父는 外官에 있다가 그 이후 乘府令·中侍 등의 中央要職에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嚴貞王后의 父의 경력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성덕왕 3년에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할 때 中侍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하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즉 嚴貞王后의 父는 中代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中侍라는 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王의 外戚이라는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것은 中侍 출신 貴族의 女가 王妃로 된 첫번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嚴貞王后의 세력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中侍를 통하여 성장한 王妃의 세력이 점차로 王權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까지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이제 그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된 嚴貞王后의 세력은 당시 王權을 強化시켜 나가려던 聖德王과도 대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嚴貞王后와 관련된 세력이 聖德王初 王妃를 納하는 등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聖德王이 즉위하는 전후의 시기에 전개된 매우 불안한 정치상황과도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聖德王의 즉위과정울 말해 주는 史料는 다음과 같다.

F 一講興光 本名隆基 (中略) 神文王第二子 孝昭同母弟也 孝昭王薨 無子 國人立之 (三國史記 8, 聖德王 即位條)

F의 기록은 孝昭王의 死後 孝昭王의 無子로 인하여 國人이 그를 세움으로써 즉위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聖德王이 즉위하게 된 과정이다. 그는 中代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太子冊封의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中代 유일한 예이다.¹⁷⁾ 또한 孝成王이

16) 李基白, 앞의 논문, pp. 168~170. 이렇게 中代 中侍職을 통하여 성장한 貴族勢力은 점차 王權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까지 발전해갔던 것으로 미루어 진다고 하였다.

17) 新羅 中代 이전 太子를 冊封한 기록은 한두 번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王位

그의 無子를 이유로 王弟를 太子로 冊封한 경우와도 다른 것이다.¹⁸⁾ 그래서 聖德王은 國人 즉 眞骨貴族의 추대를 받아서 즉위하게 된 것이다.

이 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은 孝昭王代 이후 전개된 상당히 불안한 정치정세에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歲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孝昭王은 16歲의 나이로 즉위했는데, 그가 즉기 2년 전에 A-②에 언급된 것처럼 모반사건이 일어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在位하였던 것이다.¹⁹⁾ 따라서 孝昭王은 제대로 王權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貴族勢力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孝昭王의 同母弟인 聖德王은 어린 나이에 太子로서가 아니고 貴族들의 추대를 받아서 王位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聖德王은 그를 추대한 귀족세력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聖德王을 추대한 귀족세력에 대하여는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嚴貞王后의 父가 聖德王의 즉위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것은 그가 聖德王初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中侍職에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진다. 즉 그가 聖德王이 王位에 오르는데 추대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결과 中侍가 되고,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德王初 聖德王을 추대한 귀족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繼承者로서의 太子를 冊封한 기록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太宗武烈王 이후이다. 李基白씨는 이같은 中代의 太子冊封 현상에 대하여 新羅에서도 專制王權의 확립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 312).

- 18) J-③ 史料 참조. 그런데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을 보면 孝昭王에게는 王妃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본래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
- 19) 三國史記에 의하면 孝昭王은 신문왕 7년(687)에 태어나 12년(692) 太子로서 即位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王位에 오른 경우를 惠恭王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惠恭王의 경우 8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太后의 섭정을 받았다(三國史記 9, 惠恭王 即位條).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어린 왕의 즉위가 中代 專制王權의 표시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貴族勢力의 협력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게 됨에 따라서 聖德王의 王權은 상당기간 동안 강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中代 專制王權을 확립한 神文王 이후 聖德王代에 이르면 專制王權下 新羅가 그 극성기를 구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²⁰⁾ 그와 같이 그의 즉위시 사정으로 王權이 강력하지 못했던 聖德王은 父王인 神文王과 마찬가지로 王權을 強化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가 즉위한 지 얼마 안되는 시기인 5년 후 B에 보이듯 神文王을 위하여 石塔을 건립한 것으로 보아 바로 神文王代의 정치를 회망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또한 계속 해서 성덕왕 6년(707)에 中代 첫번째 王인 太宗武烈王을 위하여 奉德寺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²¹⁾

이와 같이 王權強化를 꾸준히 추구하고자 한 聖德王의 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G-王製百官箴示群臣(三國史記 8, 聖德王 10年 11月)

聖德王은 10년(711)에 들어와서 百官箴을 지어서 群臣에게 제시하였다고 한다. 기록에 그 내용이 전하고 있지 않으나, 필시 專制王權下의 人臣으로서 받들어야 할 誠命을 적은 것임이 분명하다. 즉 聖德王은 이제 百官은 貴族의 權力者이기보다도 行政的 實務者이기를 요망하였던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聖德王이 群臣에게 이러한 자세를 요망하였다는 것

20)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 310.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21) 李奘榮씨는 이러한 聖德王의 奉德寺 創建과 관련하여 兄弟相續으로서 王位를 계승한 聖德王이 太宗武烈王을 내세워 그의 정통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專制王權을 더욱 強化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p. 7). 한편 聖德王은 4년(705)에 眞如院을 개창하고, 이 때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전당을 세우고 5인의 승려로 하여금 華嚴經을 길게 읊게 쓰게 하고 華嚴社를 結하였는데(三國遺事 3, 塔像 3, 五臺山五萬眞身條) 이러한 움직임도 전제왕권을 이루려는 그의 사상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은 그의 王權強化를 추구하려는 다른 반면이라고 할 수도 있다.²²⁾ 그렇다면 이것은 聖德王의 즉위 이후 王權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하였을 貴族勢力에 대한 경고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聖德王의 이러한 王權強化의 노력은 그의 外交政策을 통하여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聖德王代는 外交의 時代로 불릴 정도로 빈번히 唐나라에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중단되어 오던 對唐外交가 성덕왕 2년(703) 이후 재개됨으로써 적극화된 것이다.²³⁾ 그런데 聖德王의 在位 36년간에 행해진 약 43회의 對唐使臣 파견은 新羅 전 기간의 약 1/3에 달하는 것이었다.²⁴⁾ 聖德王이 이처럼 자주 唐나라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北에서 渤海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무언가 그의 절실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그것은 中代 王權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해 본다면 唐의 文物・制度를 흡수하여 자신의 王權을 強化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²⁵⁾ 따라서 그같은 빈번한 對唐外交는 聖德王의 王權強化와 상호관련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聖德王이 행한 王權強化의 노력은 당시 그의 움직임으로 보아 일정한 왕당파세력의 지지와 협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聖德王

22)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 310.

23) 高句麗를 정벌한 문무왕 8년(668) 이후 성덕왕 2년까지의 35년간은 사실상의 국교단절상태였다고 한다(申澧植, 「羅唐間의 朝貢에 대하여」, 『歷史教育』 10, 1967; 『三國史記研究』 제3장 제3절 「外交記事의 個別的檢討」, 1981, pp. 247~248).

24) 對唐交涉이 시작된 진평왕 43년(621)부터 경순왕 9년(935)까지의 315년간에 150회의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한다(申澧植, 앞의 논문, p. 247).

한편 浜田耕策씨는 聖德王代 이와 같이 對唐外交가 強化되었음을 외교기관 의 개편에서 찾고 있다. 씨는 聖德王代에 外交政策이 政治의 제1과제였다고 하면서, 성덕왕 13년(714) 2월 詳文司가 通文博士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對唐外交에 書表를 사용하는 형식을 고정화한 것으로, 對唐外交를 外交上의 제1과제로 삼고 強化시켜 나가겠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新羅 聖德王代의 政治와 外交』, 『朝鮮歷史論集』 上, 1979, pp. 221~227).

25) 中代末인 惠恭王代에 있었던 빈번한 遣唐使파견은 바로 專制王權을 지지하던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의 變革」, 『社會科學』 2, 1958; 앞의 책, pp. 234~235 및 pp. 246~247).

은 그의 王權強化作業에 그 당시 정치적으로 소의당하고 있던 人物에 특히 관심을 갖고 重用했던 것 같다. 우선 金順元의 경우 그것을 알릴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金順元은 聖德王에 의하여 王室事業에 협력하기 전에는 그 무렵 정치적으로 실각, 소의당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孝昭王末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金順元은 聖德王代에 이르러서 聖德王을 통하여 王權에 협력하는 가운데 서서히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덕왕 5년 이후 金順元이 다시 활동하게 된 것도 당시 그가 갖고 있던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을 것이다.

聖德王이 金順元과 같은 성격의 인물을 그의 側近支持勢力으로 택한 것은 金允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H-一嫡孫允中仕聖德大王 爲大阿湊 屢承恩顧 王之親屬頗嫉妬之 時屬仲秋之望 王登月城岑頭眺望 乃與侍從官置酒以娛 命喚允中 有諫者曰 今宗室戚里豈無好人 而獨召疏遠之臣 豈所謂親親者乎 王曰 今寡人與卿等安平無事者 允中祖之德也 若如公言忘棄之 則非善善及子孫之義也 遂賜允中密坐 言及其祖平生 日晚造退 賜絕影山馬一匹 群臣觖望而已(三國史記 43, 金庾信傳 下)

위의 기록은 金庾信의 孫인 金允中이 聖德王代 聖德王의 관심을 받을 때의 광경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그는 疏遠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金允中이 정치적으로 소의당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그의 家門은 金庾信의 死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몰락하고 있었다.²⁶⁾ 그렇지만 聖德王은 宗室戚里에 好人이 있다는 諫함을 무시하고 金允中을 가까이 하였던 것이다.²⁷⁾ 이것은 聖德王이 宗室戚里로서 王權을 제약하고 있던 嚴貞王后와 관련된 세력에 대신하여 金允中으로 하여금 그를 지지하는 왕당파의 인물로 삼아 王權을 強化시켜 나가고자 한 것을 말

26)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p. 315~316.

27) 사실 聖德王은 11년(712)에 들어와서 金庾信의 妻를 봉하여 夫人으로 삼고 해마다 穀一千石을 주기로 하였다(三國史記 8, 聖德王 11年 8月). 그러므로 金允中도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미 聖德王의 관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다. 따라서 金允中은 嚴貞王后가 出宮된 이후인 성덕왕 24년(725)부터 여러 차례 中侍職을 맡으며 聖德王을 도와 그의 王權強化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²⁸⁾

그러므로 聖德王과 왕당파의 이러한 활동은²⁹⁾ 이 당시의 정치에 상당한 변화를 낳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眞骨貴族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다가 聖德王을 도와 활동하기 시작한 이들 왕당파 세력은 聖德王의 王權強化過程에서 점차 세력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嚴貞王后로서 상징되며 聖德王의 王權을 제약하던 귀족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嚴貞王后의 出宮은 이러한 정치 상황하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즉 聖德王과 왕당파세력의 王權強化作業이 嚴貞王后의 出宮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그것은 嚴貞王后의 몸에서 태어난太子冊封의 문제를 통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I-① 封王子重慶爲太子(三國史記 8, 聖德王 14年 12月)

② 太子重慶卒 諡曰孝廟(同上, 聖德王 16年 6月)

I-①을 보면 重慶이 太子로 冊封된 성덕왕 14년(715)은 바로 그의 母인 嚴貞王后가 出宮당하기 1년 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②에서는 重慶이 嚴貞王后의 出宮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16년(717)에 갑자기 사망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성덕왕 14년, 15년, 16년에 일어난 이러한

28)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pp.163~164. 允中이 취임한 때부터 효성왕 1년(737) 義忠이 中侍에 임명될 때까지 12년의 간격이 있는데 H에 允中이 「屢承恩顧」하였다고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9) 六頭品出身의 귀족도 왕당파의 세력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金志誠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聖德王代 執事侍郎의 관직에 머물렀던 金志誠과 聖德王과의 밀접한 관계는 성덕왕 18년(719)에 만들어진 甘山寺의 彌勒菩薩光背銘文과 阿彌陀佛光背銘文의 兩後記에서 金志誠이 聖德王을 위하여 특히 祈願하고 있는 점으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때 金志誠이 改革政治에 참가하여 刑罰을 받을 뻔한 사실로 볼 때 그도 일시 金順元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적도 있었다.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重慶의 太子冊封으로 그것은 이후의 상황전개와 無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즉 重慶의 太子冊封으로 말미암아 嚴貞王后의 出宮이 일어났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嚴貞王后의 出宮과 함께 영향을 받은 重慶의 죽음에 발생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성덕왕 14년 重慶이 太子로 冊封되는 것을 계기로 당시 점차 열세에 물리고 있던 嚴貞王后의 세력은 그들의 힘을 다시 회복하려고 기도한 것은 아닐까. 따라서 이들 세력은 太子冊封을 계기로 왕당파세력과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王權을 強化시키고 있던 聖德王과 왕당파세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嚴貞王后의 세력이 실패·좌절하였음을 嚴貞王后의 出宮이라는 사건이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嚴貞王后가 出宮당하자 이들 세력은 자연히 몰락하게 되고, 왕당파세력과의 완전한 세력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⁰⁾ 또한 이러한 嚴貞王后의 出宮에 영향을 받아서 太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聖德王은 이후 19년에 가서 왕당파세력인 金順元의 女를 새로이 王妃로 맞아들이고 계속해서 이들 세력의 협력을 받으면서 專制王權의

30) 이 무렵에 이루어진 세력교체에 대하여 浜田耕策씨는 外交問題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씨는 聖德王代 外交를 中心으로 두 세력을 상정하였는데, 唐과의 外交政策을 제 1로 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려는 세력과 對日外交에서 종래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세력의 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세력은 서로 대립하다가 對唐外交를 중시한 思恭이 上大等이 되는 27년(728)에 교체되었다고 한다(『新羅 聖德王代의 政治と外交』, pp. 225~227).

그런데 新羅 中代에 있어서 對日外交의 비중은 그와 같이 중요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中代 국내적인 파벌대립이 종종 外交政策을 규제하여 王權을 強化시켜가려던 세력이 唐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日本과의 연결을 의도한 적은 있었다. 그렇다고 日本과의 단순한 1:1의 외교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p. 235 및 「古代韓日關係의 檢討」, 『新東亞』 1970. 8; 『韓國古代史論』, 1975, p. 75).

그렇지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聖德王代 聖德王을 중심으로 王權強化를 위해 對唐外交를 강화하려던 세력과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력의 교체는 嚴貞王后가 出宮하고 金順元의 女가 入宮하는 무렵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극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후 이루어진 丁田의 실시나 溟江 이남의 획득 등을 통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꾀하고자 한 점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³¹⁾

지금까지 聖德王은 즉위초 강력하지 못했던 王權을 強化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金順元 등 왕당파세력의 협력을 받으며 嚴貞王后의 세력을 제거하고, 金順元の 女를 새로이 王妃로 맞아들였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聖德王代 金順元の 女의 入宮은 聖德王의 王權強化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景德王의 即位過程과 金順元

聖德王代 外戚으로서 일단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金順元은 E-①에 보듯이 孝成王代에도 다시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하였다. 이 때 계속해서 王妃를 納할 수 있었던 金順元과 그의 세력의 활동을 景德王의 即位過程과 관련하여 알아보자.

景德王이 즉위하게 된 사정은 J의 기록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J-① 拜王弟憲英爲波珍淦(三國史記 9, 孝成王 3 年 2 月)

② 封波珍淦憲英爲太子(同上, 孝成王 3 年 5 月)

③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故得嗣位(同上, 景德王 即位

31) 성덕왕 21년 8월(722)에 百姓에게 丁田을 分給한데 대하여는 그 실시배경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나 李基東씨는 聖德王初 20여년간에 일어난 장기간의 災害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실시된 임시방편의 수습책과는 달리 丁田支給을 통하여 百姓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구제시책을 편 것이라고 하고 있다(『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變動』, 『歷史學報』 85, 1980;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p. 149). 사실 이후 災害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新羅는 성덕왕 34년 2월(735)에 이르면 唐으로부터 소위 溟江以南의 땅을 인정받게 된다. 그 결과 新羅는 渤海의 영토적 확장에 대응하여 邊境에 대한 안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條)

위의 기록에 의하면 효성왕 3년(739) 2월에 波珍湊이 된 憲英은 孝成王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후에 太子로 冊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孝成王의 同母弟인 그가 孝成王의 死後 王位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孝成王에 의하여 太子로 冊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景德王이 太子로 冊封된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것 같다. 太子冊封의 이유 및 시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하다. J-②에서는 景德王이 효성왕 3년 5월 비교적 빠른 시기에 太子로 冊封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J-③에 의하여 孝成王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太子로 冊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孝成王이 金順元의 女를 後妃로 새로이 맞아들인 2개월 후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보아 孝成王의 太子冊封 이유는 갑자기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孝成王代の 王妃記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에 당시 설혹 아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景德王이 太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보다 깊은 정치적인 사정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당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여 憲英으로 하여금 비교적 이른 시기에 太子로 나아가게 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孝成王代에 王妃를 둘러싸고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孝成王이 아들이 없음을 들어 憲英을 太子로 冊封한 것도 바로 王妃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고, 더우기 金順元의 女가 王妃로 새로이 들어온 2개월 후에 憲英의 太子冊封이 곧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그와 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妃의 대립·충돌과 함께 景德王이 太子로 冊立된 것이 아닐까 한다.

孝成王의 두 王妃 세력이 충돌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여기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두 王妃 세력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것은 E-③에 보이듯 孝成王의 先妃가 中國에서 冊封될 때 갑자기 朴氏로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이다. 일

반적으로 이 王妃 朴氏 기록에 대하여 中國側 기록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³²⁾ E-③ 기록은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E-③의 기록과 중국측 기록과는 상이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唐의 王妃冊封 기록이 오히려 당시의 新羅側 사정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³³⁾ 그러므로 孝成王代 이 王妃 朴氏의 入宮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

32) 따라서 朴氏王妃의 신빙성문제가 제기된다. 孝成王代의 이 朴氏王妃 기록에 주목한 李丙謙씨는 이것은 唐書 新羅傳을 인용한 모양이나, 효성왕 4년에 있는 王妃 金氏의 冊立 사실을 잘못 朴氏로 기록하여 쓴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고 있다(『國譯 三國史記』, 1977, p. 149). 또한 李基白씨도 中代王室에서는 金氏王族의 族內婚이 행해졌다고 하면서, 中代에는 단 한 명의 朴氏 출신 王妃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p. 314~315).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孝成王代의 복잡한 王妃記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33) E-③의 朴氏王妃 기록은 중국측 기록을 잘못 인용하거나, 三國史記 撰者の 주관적인 분리(井上秀雄, 「新羅 朴氏王系の成立」, p. 352)는 아닌 것 같다. 다음의 중국측 기록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 a. 俄冊其妻朴氏爲妃(新唐書 220, 東夷傳 開元 25年: 孝成王 元年)
- b. 冊承慶妻朴氏 爲新羅王妃(唐會要 95, 新羅傳 開元 28年: 孝成王 4年)
- c. 三月 癸卯 冊新羅王金承慶妻金氏(冊府元龜 975, 外臣部 20, 褒異 20, 開元 28年: 孝成王 4年)

위의 기록과 三國史記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金順元の 女인 王妃 金氏의 경우에는 入宮後인 효성왕 4년에 王妃로 冊封되고 있음에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王妃 朴氏의 경우에는 위의 a, b에서 각각 元年과 4년에 책봉되고 있어 E-③에 언급된 2년과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정한다면 三國史記 撰者가 중국측 기록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가, 주관적으로 분리해 놓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新羅 中古와 下代의 朴氏王妃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는 末松保和씨의 경우에도 a, b의 朴氏王妃 기록을 채택한다고 하면서, 中代의 王妃에도 드물게 朴氏를 기록한 것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新羅中古王代考』, 『新羅史の諸問題』, 1954, p. 183).

그러므로 오히려 위의 기록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三國史記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신라측 사정을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즉 孝成王代에 두 명의 王妃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효성왕 4년의 王妃 朴氏 기록은 이 당시에 있는 王妃 金氏의 冊立 사실을 잘못 기록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 때에 朴氏와 金氏의 두 王妃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효성왕 元年의 중국측 朴氏王妃 기록은 唐에서 있는 使臣의 출발율, 또한 三國史記에 보이는 2년의 朴氏王妃 기록은 使臣이 도착하여 冊立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孝成王代의 王妃 朴氏記錄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적 문제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孝成王이 왜 이러한 혼인을 하였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孝成王이 朴氏王妃를 맞아들이던 즉위초의 정치적 상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信忠에 관한 기록이다.

K-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園基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與拜 隔數月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佐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鞭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三國遺事 5, 避隱 8, 信忠掛冠條)

信忠에 대하여는 이미 孝成王·景德王代 中侍·上大等으로서의 경력이 알려지고 있다.³⁴⁾ 그러나 K에 의하면 그는 孝成王이 즉위하기 전부터 宮庭에서 王室의 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信忠이 성덕왕 33년(734) 入唐宿衛한 金忠信이란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³⁵⁾ 따라서 信忠은 聖德王末부터 宮庭에서 聖德王과 孝成王의 측근 인물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信忠의 이러한 활동과 관계하여 주목되는 것은 孝成王이 그의 즉위와 함께 功臣에게 상을 주는데 信忠을 등급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聖德王代부터 활동한 信忠의 비중으로 보아 信忠과 같은 王室의 측근세력이 孝成王에 의하여 그의 즉위와 함께 일시 후퇴당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게 된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孝成王은 信忠과 같이 聖德王 後期부터 세력을 떨치고 있던 王室 측근 세력에 대신하여 朴氏 세력에 관심을 갖고 또한 朴氏出身의 女와 혼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4) 信忠은 효성왕 3년 1월 中侍에 임명되어 경덕왕 3년(744) 1월까지 약 5년 동안 中侍에 在任하였다. 이후 경덕왕 16년(757) 1월부터 上大等에 임명되어 22년(763) 8월까지 있었다.

35) 三國史記 8, 聖德王 33年(734) 正月의 기록을 보면 對唐使臣으로 金忠信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를 언급한 중국측 기록에는 金信忠으로 알려지고 있어 같은 인물로 보이는 것이다(末松保和, 「新羅の郡縣制, 特にその完成期の二・三の問題」,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 21, 1979, p. 67).

따라서 孝成王이 그의 즉위 이후 王室 측근세력에 대한 무시, 朴氏와의 혼인 등 일련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당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선 孝成王이 朴氏勢力을 점차 가까이 함으로써 朴氏의 세력을 확대시켜 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사실 新羅 中代에서의 朴氏 세력이란 上代와는 다른 것이었다. 朴氏가 貴族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는 統一 이후 貴人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지만, 統一新羅時代 王權이 專制化됨에 따라서 眞骨貴族인 朴氏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다.³⁶⁾ 그러므로 孝成王의 先妃인 朴氏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王妃의 姓에서 볼 수 있듯이 朴氏 세력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王族 金氏내의 族內婚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던 당시 金氏 眞骨貴族에게도³⁷⁾ 이러한 현상은 크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K에 보이듯 信忠의 예에서 쉽게 알릴 수 있다. 信忠는 孝成王이 功臣에게 상을 줄 때 그를 등급에 넣지 않자 곧 王에게 불만을 갖는 비판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先妃 朴氏에 이어 새로이 王妃를 納한 金順元에게도 특히 그러하였을 것이다. 金順元은 그의 女를 成德王 19년에 王妃로 納한 이후 外戚으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金順元의 세력도 信忠와 마찬가지로 宮庭을 중심으로 활동한 王室 측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宮庭에서 外戚으로 활동하고 있던 金順元에게 朴氏 王妃의 入宮과 活動은 역시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더우기 이와 같이 형성된 不滿勢力은 孝成王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움직임은 孝成王 3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갔던 것 같다. 그것은 信忠의 中侍 임명, 金順元의 女의 入宮, 憲英의 太子冊封 등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36)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pp. 314~315.

37) 李基白, 앞의 논문, p. 311.

K를 보면 信忠은 王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이후 孝成王으로부터 爵祿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효성왕 3년 정월에 그가 中侍에 임명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러니까 孝成王의 즉위 이후 3년 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당하였던 信忠은 이제 다시 활동하게 된 것이다. 信忠이 中侍에 임명되는 배경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金順元 세력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中侍에 임명된 바로 직후인 2월에 憲英이 波珍湊이 되어 대두하고 있으며, 3월에 金順元의 女가 다시 王妃로 冊封되고 그리고 2개월 후인 5월에는 憲英이 太子로 冊封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信忠의 中侍 임명과 이후 그의 활동과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金順元의 女가 聖德王代에 이어 계속해서 王妃로 冊封된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孝成王初 朴氏勢力의 활동과 함께 일시 열세에 놓였던 外戚 金順元의 세력은 信忠의 中侍 임명과 함께 孝成王으로 하여금 새로이 그의 女를 王妃로 맞아들이게 하여 朴氏王妃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金順元의 세력은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함과 동시에 당시의 정치정세에 더욱 밀접히 개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효성왕 3년 金順元의 세력을 중심으로 변화가 생김으로써 이들은 곧 朴氏의 세력과 대립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정세 속에서 계속해서 효성왕 3년 5월 憲英의 비정상적인 太子冊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金順元이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한 이후 보다 더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太子冊封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미 효성왕 3년 5월에 憲英이 太子로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러한 물의 속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상당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⁹⁾ 우선 信忠을 생각할 수 있다. 信忠과 景德王과의 밀접한 관계는 信忠의 景德王

38)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양의 책, p. 109.

39) 李昊榮씨는 景德王 憲英이 일찍이 太子로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를 지

代 활동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⁴⁰⁾ 信忠은 그의 中侍在任 기간 중 憲英의 太子冊封에 밀접히 간여함으로써 景德王代 王權強化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었다. 다음으로 金順元을 들 수 있다. 金順元은 景德王에게는 外祖로서, 그의 母后勢力이라고 할 수 있다. 孝成王에 대한 이들의 不滿이 憲英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또한 憲英의 太子冊封을 통하여 그들의 세력을 보다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그러므로 효성왕 3년 2월 波珍淪으로 대두한 憲英은 비교적 빠른 시기인 5월에 이르러 金順元 등 일정한 세력의 지지 속에서 그 당시까지의 孝成王의 無子를 이유로 해서 冊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효성왕 3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볼 때 5월에 憲英이 太子로 冊封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孝成王代 王妃를 둘러싼 정치변화 속에서 外戚勢力인 金順元 등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성왕 3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 속에서 金順元과 관계된 세력의 승리는 憲英의 太子冊封 이후 약간의 반발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한

지하는 상당한 배경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憲英의 太子冊封은 王室 內部的 파벌이 각축하는 속에서 적지 않은 물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pp. 10~11).

- 40) 李基白씨는 「景德王과 斷俗寺·怨歌」(『韓國思想』 5, 1962; 앞의 책)에서 景德王의 漢化政策과 관련하여 그 점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景德王은 漢化政策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信忠을 上大等으로 임명하여 보다 대규모적으로 漢化政策을 실시해 나갔던 것이다.
- 41) 이와 같이 憲英의 太子冊封이 孝成王初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효성왕 3년 3월에 그의 女를 王妃로 納한 金順元側의 외도가 여의치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효성왕 3년 正月 波珍淪이 되어 대두한 憲英의 움직임과의 자세한 관련은 알 수 없지만, 金順元이 後妃로 들어간 그의 女에게서 太子를 기다리지 않고 外孫인 憲英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정치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갔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 한편 聖德王의 王子들을 중심으로 한 알력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太子로서 王位에 오른 景德王 憲英은 즉위 후 그의 弟인 無相의 귀국을 두려워하여 刺客을 보내어 살해하려고 하였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덕왕 27년(728) 入唐한 無相은 당시 新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宋高僧傳』 19, 感通篇, 唐成都淨衆寺無相傳 및 崔炳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pp. 90~91).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다음의 기록들이다.

L-① 有一緋衣女人 自隸橋下出 謗朝政 過孝信公門 忽不見(三國史記 9, 孝成王 4年 7月)

② 波珍漁永宗謀叛 伏誅 先是永宗女入後宮 王絕愛之 思渥日甚 王妃嫉妬 與族人謀殺之 永宗怨王妃宗黨 因此叛(同上, 孝成王 4年 8月)

위의 사건들은 효성왕 3년 憲英이 太子로 冊封되는 등 金順元의 세력에 의하여 정치가 주도되는 상황이 전개된 바로 1년 뒤인 4년(740) 7, 8월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L-①에서 緋衣를 입은 女人이 조정을 비난했다는 것은 太子가 비정상적으로 책봉된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貴族들의 불만을 표시한 것은 아닐까.⁴²⁾

貴族들의 이러한 반발은 永宗의 세력에 의하여 L-②에 보이듯 8월에 모반사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⁴³⁾ 永宗이 亂을 일으킨 이유는 효성왕 4년 8월 이전 後宮에 들어간 그의 女를 孝成王이 매우 가까이 하자 王妃가 질투하여 族인과 더불어 永宗의 女를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永宗의 女를 살해한 王妃는 당시 세력을 떨치던 金順元의 女로 추측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孝成王이 永宗의 女를 가까이 하였던 것은 계속해서 王妃를 納하여 세력을 형성한 金順元에 대한 불만에서가 아닐까 한다. 그러

42) 李昊榮씨는 儒敎에 밝은 六頭品의 소유자들이 憲英의 太子冊封을 반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p. 11).

43) 기존의 연구에서는 永宗의 亂이 外戚의 지위를 둘러싼 압력(井上秀雄, 「新羅 政治體制의 變遷過程」, p. 455) 혹은 外戚의 원세를 누리고 있던 順元一族에 대한 저항(浜田耕策, 「新羅의 聖德大王神鐘と中代の王室」, p. 37)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永宗은 筆者가 孝成王의 先妃로 본 朴氏의 父인 眞宗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永宗의 女의 入宮 시기 및 L-②에 언급된 後宮의 문제가 있어 자세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井上秀雄씨의 경우에는 永宗의 女를 孝成王의 先妃로 보고 있다(註 9 참조). 만약 永宗의 女가 孝成王의 先妃였다고 한다면 孝成王代의 정치변화를 王妃의 문제로 살펴보고 있는 筆者의 논리는 보다 분명해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孝成王의 先妃인 永宗의 女가 金順元의 女의 入宮과 함께 後宮으로 옮겨갔다가 孝成王이 더욱 가까이 하자 金順元側이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므로 金順元에 의하여 그의 女를 살해당한 永宗은 金順元의 세력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永宗의 모반사건도 크게 보아 역시 憲英의 太子冊封 등 당시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金順元의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던 당시의 정치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貴族들의 반발은 쉽게 진압되었던 것 같다. 永宗의 女의 살해와 亂의 진압 과정에서 보이듯 金順元의 세력은 아주 강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永宗의 亂이 실패한 바로 다음 해를 보면,

命大臣貞宗·思仁 閱弩兵 (三國史記 9, 孝成王 5年 4月)

라고 하듯 聖德王代부터 활동한 貞宗, 思仁이 弩兵을 사열하고 있다.⁴⁴⁾ 이것은 당시 정치, 군사의 실력자인 이들이 永宗의 亂을 진압하는데 실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永宗의 亂의 진압과 함께 더욱 金順元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 갔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당시 孝成王의 위치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孝成王은 자기를 중심으로 조성된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큰 역할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孝成王은 弟인 憲英의 비정상적인 太子冊封 과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가 매우 가까이 하던 永宗의 女가 제거됨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완전히 그의 母后와 後妃로 女를 納한 金順元과 관계된 세력에 의하여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 같다. 그리고 永宗의 모반이 실패한 2년 후 孝成王은 아무런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죽고 있는데,⁴⁵⁾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金順元 세력의 협력을 받아 太子가 되었던 憲英이 王位에 오르게 된 것이다.

44) 貞宗·思仁은 允忠 등과 함께 성덕왕 31년(732) 12월에 將軍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貞宗은 孝成王의 즉위와 함께 3월 上大等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45) 孝成王은 永宗의 亂이 있던 2년 후인 6년(742) 5월에 죽었다.

이상에서 聖德王代 外戚으로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金順元의 세력이 孝成王初 孝成왕이 王妃로 朴氏를 맞아들이는 등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키자 이에 王妃로 그의 女를 다시 納하고, 마침내 王位繼承에까지 깊이 간여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孝成王代 金順元의 女의 入宮은 孝成王初 전개된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聖德王·孝成王代 二重的인 혼인 관계를 맺은 金順元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당시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聖德王은 귀족세력의 추대를 받아 즉위함으로써 상당기간 그의 王權이 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侍 및 外戚으로서 활동한 嚴貞王后의 세력의 제약울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聖德王은 金順元과 같이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던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王權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聖德王과 왕당파의 활동은 상당한 정치변화를 낳았는데, 특히 嚴貞王后로서 상징되며 聖德王의 王權을 제약하던 귀족의 세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에 嚴貞王后의 세력은 성덕왕 14년 重慶의 太子冊封을 계기로 그들의 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嚴貞王后의 出宮과 함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왕당파와의 완전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聖德王은 金順元의 女를 王妃로 새로이 맞아들이며, 專制王權의 극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聖德王代 金順元의 女가 入宮할 수 있었던 것은 金順元이 聖德王의 王權強化作業에 적극 협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聖德王代 이와 같이 外戚으로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金順元은

孝成王代에도 그의 女를 계속해서 王妃로 納하였다. 그것은 孝成王初 任
 개된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孝成王이 그의 즉위
 와 함께 儒忠과 같은 王室 측근세력을 무시하고, 朴氏 출신의 女와 혼인
 하는 등 당시 커다란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때 세력을 잡고 있던 金氏 順元의 세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
 였던 것이다.

그래서 金順元은 그의 女를 다시 王妃로 納하면서 孝成王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후 金順元은 王位繼承
 에까지 개입하였는데, 景德王 憲英의 太子冊封을 통하여 그의 세력의 지
 위를 보다 확고히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곧 일어난 反對勢力의
 불만을 제압하면서 孝成王의 死後 景德王이 王位에 오를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金順元은 孝成王代에도 그의 女를 王妃로 바침으로
 써 계속해서 外戚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실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聖德王・孝成王代 金順元의 세력이 이와 같이 外戚으로서 크게 활
 동할 수 있었던 것은 中代 專制王權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專制王權은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지배세력
 의 범위를 극히 축소시켰기 때문이다.⁴⁶⁾ 이에 강력한 王權을 배경으로 하
 고 王權에 기생하던 外戚의 세력이 크게 세력을 떨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다. 그러므로 中代 專制王權의 시대는 新羅 어느 시대보다도 外戚이 크
 게 활동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1976, pp. 451~453. 統一新羅期까지 점차 支配勢力의 범위가 축소되어 오다가, 이후 반대로 支配勢力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즉 專制王權의 시대는 王族 金氏가 배타적으로 權力을 독점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英文 要約〉

Kim Soon-woon(金順元)'s Political Influence
during the Reigns of King Sung-duk(聖德王)
and King Hyo-sung(孝成王) in the Silla Dynasty

Kim, Soo-tae

This study is about Kim Soon-won's political influence during the reigns of King Sung-duk and King Hyo-sung in the Silla dynasty. Kim Soon-won was the prime minister (中侍) under King Huo-so (孝昭王), and during the reigns of King Sung-duk and King Hyo-sung, he exercised political power as the father-in-law of these two kings who married his two daughters.

At the end of King Hyo-so's reign, Kim Soon-won lost his power because of his connection with a rebellion. But later he became involved in helping King Sung-duk who wanted to strengthen his power against the influence of the nobility. At the beginning of King Sung-duk's reign, the king's power was very weak because he could be king only with the support of the nobility. Again Kim Soon-won became a very influential person under the king. The king and his political followers weakened the nobility's influence over the king's power. This explains why the king's first wife was deserted, although he later married Kim Soon-won's daughter, and eventually the Silla dynasty became extremely autocratic.

Kim Soon-won's political influence during the beginning of King Hyo-sung was at a disadvantage because the king began to exclude Kim Soon-won's relatives and married a daughter of the Park (朴氏) family. This event brought many political changes. Kim Soon-won tried to solve the problems surrounding King Hyo-sung and forced

him again to marry his daughter, but his attempt was not completely successful. At last Kim Soon-won tried to manipulate the king's younger brother, Huhn-young (憲英) to become next king in order to reestablish and strengthen his political power. As a result he continued to be a man of tremendous political power and influence during the period of King Hyo-sung's rule.